제11회 독립기념관 UCC공모전

- 심사평 -

올 해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작품번호 54번 '나의 이름은'은 공모전 주제와의 적합성, 영상의 퀄리티 그리고 홍보성 삼박자를 고루 갖춘 훌륭한 응모작이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부터 촬영준비 그리고 촬영 및 편집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한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고 또, 영상 속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배우 캐스팅 역시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찾아가봐야 할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전달해 낸 작품이어서 대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는데에 있어 모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상 수상작인 작품번호 56번 '역사의 의미, 내일을 위한 발자국'은 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제작되어 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머무는 역사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역사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자칫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영상 초반 명제를 던지고 이를 잘 풀어나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긍정적 요소로 전환시킨 것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상 수상작 3개의 작품 모두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작품으로써, 작품번호 5번은 평범함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위하는 일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품번호 27번은 드론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전경을 보여주고 각 spot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매우 잘 정리해서 '정보의 가치'를 지닌 좋은 콘텐츠로 승화시켰습니다. 작품번호 51번은 일본어 나래이션과 일본에 오래 살았던 한국인이 독립기념관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게되었다는 내용으로, 자칫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들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낸 요소가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상 작품들 역시 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봄 전경,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독립기념관, 홈쇼핑의 여행 상품 소개 형식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영상 포맷으로 응모되어 공모전을 빛내주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독립기념관 UCC공모전이 국내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을 매년 타 기관 및 여러 기업들의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매 회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공모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올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이진호 -